'PP. 8. 15
향린

새천년과 희년정신

박 영 숙

이제 우리는 새 세기, 새 천년의 날짜읽기에 들어섰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두 세기, 두 천년을 걸쳐 사는 세대로서 살아온 한 세기와 또 하나의 세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 열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한해가 저물 때 사람들은 지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새해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다짐도 하고 희망도 가져 보며 불안과 기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한다.

사람들이 한 해를 맞이하는 일에도 그럴진대 새 백년 또는 새 천년을 맞이함에 있어 예사로울수 없다.

지구상의 여러나라들에서는 저마다 거액을 투입하여 기념물을 건설하거나 다양한 축제계획으로 2000년 맞이에 분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화비젼 2000위원회가 새 천년 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축제분위기로 이 중요한 계기를 놓쳐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인류가 과거와 현재의 연장 선상에서 세번째 밀레니엄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 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경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제와 오늘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인간의 자연착취, 강자의 약자억압, 생명경시, 물질만능풍조 등은 세기말적인 위기의 징후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이렇게 세상은 더이상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래야 살기 힘들게 된 것이다. 새로운 판을 짜지 않고서는 바로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교황청이 2000년을 대희년으로 선포하고 부국들에게 제3세계의 빈국들이 떠안고 있는 부채를 탕감해 주도록 촉구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오늘의 국제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 3국의 부채문제를 푸는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교황청의 촉구는 가히 폭탄선언에 해당한다. 이 문제는 유엔에서도 논의하기를 꺼리는 예민한 과제로서 지금까지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희년제도는 레위기 25장에서 권해주고 있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팔았던 토지를 돌려 받는가 하면 땅을 쉬게 하므로 자연도 은혜를 입

게 하며 일꾼도 쉬게 하는 땅위의 모든 것에 해방을 가져다 주는"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희년의 선포는 역사적 과정을 중지시키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조건 밑에서 재출발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낡은 것, 왜곡된 악순환을 정지시키고 누적된 모순에서의 해방이다. 음력에서의 윤달이 달력의 차질을 조절해 주듯이 희년의 은혜는 하느님과 인간사이, 인간과 인간사이, 그리고 자연과 인간사이의 뒤틀려진 관계를 바로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하느님 나라 도래>가 희년의 선포인 것이다.

희년은 속죄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욤 키프로>라는 대속죄일을 해마다 지킨다고 한다. '욤'이란 '날'이고 '키프로'란 '갚는다' 또는 '변상한다'라고 한다. 이날은 공휴일로서 사람들은 금식과 기도로서 정중하게 지낸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갚을 것과 용서 받을 일을 해결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한다. 희년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 백화점들은 이날을 기해 일년간의 이익금중에서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다는 것인데 일년동안의 상거래를 통해 알게 모르게 저지른 그들의 잘못을 보상하는 뜻에서란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란 것이 이러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8월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새 천년을 150일도 남겨 놓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대희년을 맞이하기 위한 대속죄의 기간이 된다. 개인은 개인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그리고 국가는 국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년맞이 준비를 본받아야 할 것 같다. 갚아야 할 일과 용서받을 일을 찾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 희년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를 일단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끝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희년정신의 실현인 것 같다.

나에게 있어서 대희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단 나의 오늘의 삶을 멈추고 나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아닐까. 일정에 쫓겨서, 상황에 밀려서, 통념에 사로잡혀서 날들을 죽이고 있는 타율적인 삶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비록 같은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천지의 차가 있을 것이다. 희년의 은혜는 나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경건해진다. 새 천년은 대속죄를 전제로한 희년정신으로 시작해야 한다.

향린

일천구백구십구년 여름 제30호

특집 I / 통일과 교회의 할 일
특집 II / 21세기 선교사업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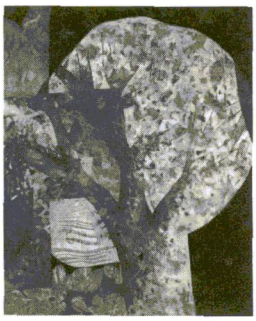


향린교회

향린 제30호 일천구백구십구년 여름 1999. 8. 14. 발행

발행/홍근수
고문/홍영진

문서선교위원회
위원장/김태준
위원/김태식, 김혜숙, 노현숙, 안정연,
윤완수, 이계숙, 장명숙, 조명숙
조현설, 최영선, 한숙희, 황선희
제작/현대미디어 · 3143-2114



제자 신영복
그림 사지혜(재미교우)
그림제목 '동심속으로'

차례

특집 I 통일과 교회의 할 일

해방과 평화와 교회의 사명 ..... 홍근수 4
민족화해를 위한 탈 냉전 ..... 김낙중 8
새로운 통일협의체 '자통협'을 찾아 ..... 조현설 17
진정한 애국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라 ..... 심병호 25

특집 II 21세기 선교사업 구상

선교사업의 원칙과 방안 ..... 임승계/강은성 28
제안에 대한 의견/ 선교사업 ..... 김 진 33
선교방향 공청회 지상중계 ..... 목회실 36

새천년새정신 새 천년과 희년정신 ..... 박영숙 39
교우탐방 송금심 장로와 여름 한나절 ..... 편집부 41
환 경 피조물의 탄식 ..... 홍순관 45
수 련 회 전교인 수련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김태식 48
기독교연구 세기말과 종말론적 신앙 ..... 김 진 53

새 천년과 희년 정신



박 영 숙 교우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이제 우리는 새 세기, 새 천년의 날짜읽기에 들어섰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두 세기, 두 천년을 걸쳐 사는 세대로서 살아온 한 세기와 또 하나의 세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 열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한해가 저물 때 사람들은 지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새해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다짐도 하고 희망도 가져 보며 불안과 기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한다.

사람들이 한 해를 맞이하는 일에도 그럴진대 새 백년 또는 새 천년을 맞이함에 있어 예사로울 수 없다.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저마다 거액을 투입하여 기념물을 건설하거나 다양한 축제계획으로 2000년 맞이에 분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화비젼 2000위원회가 새 천년 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축제 분위기로 이 중요한 계기를 놓쳐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인류가 과거와 현재의 연장 선상에서 세 번째 밀레니엄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경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제와 오늘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인간의 자연착취, 강자의 약자억압, 생명경기, 물질만능풍조 등은 세기말적인 위기의 징후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이렇게 세상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래야 살기 힘들게 된 것이다. 새로운 판을 짜지 않고서는 바로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교황청이 2000년을 대희년으로 선포하고 부국들에게 제 3세계의 빈국들이 떠 안고 있는 부채를 탕감해 주도록 촉구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오늘의 국제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 3국의 부채문제를 푸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교황청의 촉구는 가히 폭탄선언에 해당한다. 이 문제는 유엔에서도 논의하기를 꺼리는 예민한 과제로서 지금까지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희년제도는 레위기 25장에서 전해주고 있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팔았던 토지들 돌려 받는가 하면 땅을 쉬게 하므로 자연도 은혜를 입게 하며 일꾼도 쉬게 하는 땅위의 모든 것에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희년의 선포는 역사적 과정을 중지시키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조건 밑에서 재출발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낡은 것, 왜곡된 악순환을 정지시키고 누적된 모순에서의 해방이다. 음력에서의 윤달이 달력의 차질을 조절해 주듯이 희년의 은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뒤틀려진 관계를 바로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하느님 나라 도래」가 희년의 선포인 것이다.

희년은 속죄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욤 키프로」라는 대속죄일을 해마다 지킨다고 한다. '욤' 이란 '날' 이고, '키프로' 란 '갚는다' 또는 '변상한다' 라고 한다. 이날은 공휴일로서 사람들은 금식과 기도로서 정중하게 지낸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갚을 것과 용서 받을 일을 해결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한다. 희년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 백화점들은 이날을 기해 일년간의 이익금 중에서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인데 일년 동안의 상거래를 통해 알게 모르게 저지른 그들의 잘못을 보상하는 뜻에서란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란 것이 이러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8월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새 천년을 150일도 남겨 놓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대희년을 맞이하기 위한 대속죄의 기간이 된다. 개인은 개인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그리고 국가는 국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년맞이 준비를 본받아야 할 것 같다. 갚아야 할 일과 용서받을 일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희년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를 일단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끝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희년정신의 실현인 것 같다.

나에게 있어서 대희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단 나의 오늘의 삶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아닐까. 일정에 쫓겨서, 상황에 밀려서, 통념에 사로잡혀서 날들을 죽이고 있는 타율적인 삶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비록 같은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천지의 차가 있을 것이다. 희년의 은혜는 나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경건해진다. 새 천년은 대속죄를 전제로 한 희년정신으로 시작해야 한다.